

'설록' 배우 컴버배치의 광기어린 '햄릿'

영국 '햄릿'에서 햄릿이 관객들의 연극을 보고 각성하는 순간, 카메라가 점차 그를 줌 인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한 작은아버지인 왕 '클로디어스'에 대한 의심이 격정적으로 표출되는 순간

클로디어스가 자신의 아버지이자 그의 형인 전 왕을 죽였다고 확인하는 햄릿은 의심과 똑같은 내용이 담긴 연극을 통해 그의 표정 변화를 읽기 위해 결심하면서 점차 냉정을 찾아간다.

동시에 점차 카메라는 줌 아웃된다. 그리고 관객들이 연극을 하는 모습이 다시 프레임에 들어온다. 초상화는 그렇게 풍경화가 되고 영상 속 무대는 생생함과 함께 생명력으로 펼쳐져간다.

국립극장(극장장 안효상)이 24일 오후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선보인 NT 라이브 '햄릿'은 배우의 예술인 연극과 프레임의 통한 감독의 예술인 영상의 매력을 절묘하게 혼합했다.

NT 라이브는 '내셔널 시어터 라이브(National Theatre Live)'의 약칭이다. 영국 국립극장이 연극 화제작을 촬영해 세계 공연장과 영화관에 생중계 또는 앙코르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립극장은 2014년 3월 NT 라이브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위 호스' '코리올리우스' '리어왕' '프랑켄슈타인' 다

3월 3일까지 서울 장충동 해오름극장서 상영

리에서 바라본 풍경' 등 5편을 선보였다.

올해는 영국 문화 세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기념해 세익스피어 명작인 '햄릿'과 '코리올리우스'를 준비했다.

'햄릿'은 특히 영국 BBC TV시리즈 '설록'으로 세계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베네딕트 컴버배치(39)가 타이틀롤을 맡아 눈길을 끈다. 최근 공연예술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대영황실훈위'를 수여받은 그는 이 작품에서도 광기 어린 '햄릿'의 독백 연기를 능숙하게 소화한다.

NT라이브 '프랑켄슈타인'에서 괴물을 맡아 신체극에 가까운 연기를 보여준 그는 가장 맘에 나는 햄릿을 선보인다. 설록 흡스의 광기와 이성을 가져온 듯, 열정과 냉정 사이를 수시로 오가며 2층 무대를 위아래로 쉴 새 없이 뛰어다닌다. 막판 그의 웃은 땀 범벅이다.

그래서 그의 햄릿은 다른 차원으로 승화한다. "호두알 속에 틀어박혀 있어도 무한한 공간의 왕"이라는 '햄릿' 속 대사처럼 한정된 무대에서 오히려 자유롭고 광적이다. 한정된 프레임으로 볼 수 밖에 없는 NT라이브에서도 빛이 나는

이유다. 단층 무대 하나에서도 탁월한 분할 감각을 보여준 영국 '차이메리카'로 '보런스 올림피에 어워드' 연출상을 수상한 린지 터너는 이번 '햄릿'에서 2층 무대와 극장의 넓은 뒷공간을 활용한 연출로 입체감을 살렸다.

'햄릿'은 연극이 현실의 거울이자 반

영이라는 것도 보여준다. 영상을 통해 보는 이러한 연극 세계는 좀 더 객관적인 몰입감을 안긴다.

3월3일까지 장충동 해오름극장에서 '햄릿'과 '코리올리우스'가 교차 상영된다.

표가 모두 팔려나가 취소표를 기다리는 수도 있다. '코리올리우스'는 지난해 국립극장에서 처음 상영할 때 조기 매진, 1회를 추가했음에도 매진된 바 있다. 1만5000원. 국립극장 플렌터. 02-2280-4114 /정해은 기자



2층 무대를 위아래로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열정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39)



K팝 융복합 홀로그램 공연장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선보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K팝 융복합 홀로그램 공연장'을 선보였다. 해외 최초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문화기술(CT)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돕는 '네비 K-CT 프로젝트'의 우수콘텐츠 복합 문화공간 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공연장 구축에는 SBS플러스와 홀로티브 글로벌이 참여했다.

센토사 섬은 여의도 약 2배 크기의 인공 섬이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여러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선 싱가포르의 대표적 휴양지다. 공연장이 들어선 리조트 월드센토사는 연간 1500만명이 방문하는 싱가포르 최대 관광 명소다.

공연장에서는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원더걸스' '2PM' '가세븐' 공연이 홀로그램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의 홀로그램 공연이 스크린 또는 유리면에 부착하는 투명필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과 달리 이번 공연장은 그물망인 메시 구조 방식의 홀로그램 소재를 활용했다. 공연 모습을 훨씬 더 실감나게 표현해 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관객들이 실제 K팝 스타들을 마주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가상현실기술(telepresence) 시스템을 적용했다. K팝 공연 외에도 한국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스트리트 댄스의 한 장르인 크랩 댄스 등을 라이브공연과 홀로그램 방식을 결합하는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일제 수탈확인 기록영상 3·1절에 공개

러시아·독일에서 발굴된 '복선의 양은 말한다' 등 7편

한국영상자료원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제강점기 기록영상 공개 언론시사회'를 열고 1920~30년대 생활상과 일제의 수탈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미공개 기록영상 7편을 공개했다. 고려대 송규진 교수, 한국영상자료원 류재림 원장, 장광현 수집부장이 참석했다.

영상물은 '복선의 양은 말한다'(1934)와 제목 미상인 '황해도 축산공진회' 영상(1924) 등 2편이다. 또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로 잘 알려진 독일 노르베르트 베버(1870~1966) 신부가 촬영한 기록영화는 독일 성오탈리엔 수도원에서 찾아냈다.

'한국의 결혼식'(26분56초), '조선상배'(20분38초), '한국의 아이들'(18분48초), '한국의 선교현장에서'(7분54초)와 약 4시간 분량에 달하는 촬영분까지 함께 발굴했다.

'복선의 양은 말한다'는 일본이 제작한 선전 기록영화로, 북한 지역으로 호주산 양을 운반·사육하는 과정 등 1930년대 일제의 남면복양(南綿北羊) 정책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독특하게도 자막 내레

이션이 양의 시점으로 표현했다. 북한이 양이 살기에 좋은 지역임을 강조하고, 일본에 충성하도록 해설을 써 어른 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까지 일제의 정책을 쉽게 전할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송규진 교수는 "남면복양정책은 일제가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자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면과 모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남한에서 면화를 재배하고 북한에서 양을 사육한 정책"이라며 "이번 영상은 양 수송 과정을 순차적으로 상세히 촬영해 수송해로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남방지역과의 일반무역에서 어떤 경로가 활용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수입 양이 하역되는 곳은 청진 나진과 함께 '복선 3항'이라 불리던 웅기(현 선봉)였다. 이곳에서 내린 양은 철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경원의 동척 목장으로 수송해 사육했는데 영상은 이 과정을 담고 있다. 동척은 일제의 대표적인 수탈기구였다. 동척 산하에는 목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북양정책도 실행했다는 점에서 동척의 수탈정책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송 교수는 "그동안 학계에서 남면복양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처럼 양을 수입해 육성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보여진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일제시기 연구를 위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며 "황해도 축산공진회 영상과 더불어 학계에 자극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해은 기자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영상자료원 일제 강점기 기록영상 발굴공개 언론시사회'에서 류재림 원장이 발언 하고 있다.

영화제작인력 인턴 뽑는다

전주영상위원회 수시로 신청 받아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전주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 영화제작인력 인턴십 사업이 진행된다. 25일 전주영상위원회는 올해 영화현장 실습 인턴과 인턴을 희망하는 업체를 지난 22일부터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 영화제작인력 인턴십 지원 사업은 영화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체험함으로써 도내 예비 영화영상 인력들로 하여금 전문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의 성과까지 목표를 계획한 프로그램이다.

인턴실습생 모집대상으로는 전북도 거주자 및 도내 고등학교이상이 졸업생, 그리고 도내 영화영상학과 출신 자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인턴십 지원자들은 최대 6개월간 실습이 가능하며, 월 130만원의 실습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인턴의 스펀 보험 등을 가입하여 실습생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말안바 해당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며 실무능력을 쌓게 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인턴은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jfc.or.kr)에서 지원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정영수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2월 26일)

<p>▷쥐띠 49년생: 금전거래는 삼가고 지출을 줄여라. 80년생: 뒷사람에게 부탁한 일이 있다면 부딪스르지 않은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라. 72년생: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운 84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베풀어야 덕을 보는 것임을 잊지 마라.</p>	<p>▷소띠 49년생: 긍정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이다. 61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이다. 73년생: 자신만만한 일도 실수 할 수 있는 운 86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일찍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늦게 움직이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뺏길 것이다.</p>	<p>▷호랑이띠 5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허니씩 진행해 나가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건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4년생: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 경쟁구도에 처하게 된다. 86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p>	<p>▷토끼띠 51년생: 자신보다 연장자로 근심과 일이 생기는 운 63년생: 정신이 뒤지 있으니 세밀한 일이나 중요한 일은 다 음으로 미루는 것이 상책이다. 75년생: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금액을 낮춰야 가능하다. 87년생: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운</p>
<p>▷용띠 50년생: 솔리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나 건강에는 좋지 못하니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64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는 시기. 76년생: 문주하고 정신없는 운이다. 88년생: 동기진과 함께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물 얻을 수 있다.</p>	<p>▷뱀띠 53년생: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65년생: 작은 금액은 얻을 수 있으나 큰 금액에 관련된 것은 기다려야 이루어진다. 77년생: 사고수가 따르니 가끔씩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89년생: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만가게 대해 재고해라.</p>	<p>▷말띠 54년생: 너무 강하게 처신하면 적만 만드는 격이니 타인에게 배를면서 부드럽게 처신하라. 66년생: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 78년생: 동기간과 화합이 잘 되니 재물이 나가는 일이 발생 90년생: 좋은 일하고 행운을 들을 수 있는 운.</p>	<p>▷양띠 55년생: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신상에 좋지 않다. 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겨난다. 79년생: 출생6년 손재수가 따르니 목적이 소망이 아니라면 금전거래에 유의하라. 91년생: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p>
<p>▷원숭이띠 56년생: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발생하는 운이다. 68년생: 부부나 연인 사이에 의견이 마찰되어 마음상하는 일이 발생하는 운 80년생: 뒷사람에게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92년생: 원형은 살가는 것이 좋은 운이다.</p>	<p>▷닭띠 57년생: 고집은 금물.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69년생: 어차피 내 것이 되지 않을 상책 81년생: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조언대로 행동하라. 93년생: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신호.</p>	<p>▷개띠 48년생: 식욕이 따르고 인적이 생기는 운 59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점심시간을 활용해 회라. 70년생: 너무 밝은 물결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다. 82년생: 한계점에 많은 것을 허려 하지 마라.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화만 부르는 격이다.</p>	<p>▷돼지띠 47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 5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더 큰 이익이 따르는 운. 71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 아주 좋은 운이다.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이 리면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다. 83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니 속마음을 숨기고만 있지 말고 표현해라.</p>